

# 해외의약뉴스

## 진드기와 라임 병 : 우리는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가?

### 개요

우리는 진드기와 라임병에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가 선호하는 서식지는 나무가 우거진 숲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의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진드기의 크기는 매우 작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우며,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질병의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키워드

진드기, 라임병

### 진드기란 무엇인가?

진드기는 외형상 곤충, 거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지동물(관절로 된 다리를 가진 무척추동물)로 분류되며, 흡혈로만 살아가는 작은 외부 기생충이다. 진드기는 참진드기(hard tick, ixodidae)와 연진드기(soft tick, argasidae) 두 종류가 있는데, 참진드기는 등에 딱딱한 보호판이 있어 이로 인해 먹이를 먹는 속도를 제한받지만, 연진드기는 더 딱딱하여 보호판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먹이를 먹는다.

진드기는 호흡, 냄새, 체온, 습도, 진동 그리고 심지어 그림자를 감지하여 잠재적인 숙주를 찾아낸다. 진드기는 날거나 뿔 수 없기 때문에 잔디와 관목의 끝부분에서 첫 번째 다리 쌍을 쭉 뻗은 상태로 붙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숙주가 옆을 지날 때 숙주에 올라타 관(feeding tube)을 통해 흡혈한다.

진드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 적극적으로 진드기를 찾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진드기는 마취할 수 있는 타액을 분비할 수 있어 진드기에 물린 부분을 마비시킴으로써 숙주로 하여금 진드기가 붙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진드기에 물리는 것에 대한 위험은 몇몇 진드기가 옮기는 병원균으로부터 비롯된다. 만약 진드기가 감염된 숙주동물을 흡혈하였다면, 진드기가 다른 숙주에 붙어서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다.

### 진드기와 라임병

진드기는 라임병(피로감, 발열, 두통, 피부발진이 특징인 세균감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임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인체를 통해 확산될 수 있어, 심장, 관절,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세균감염인 라임병은 주로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과 같은 항생제로 치료되는데, 만약 질병이 수 주간 진행된다면, 질병의 진행정도에 따라 정맥 내 항생제 투여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반드시 라임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임병에 걸리는 요인에는 진드기의 종류, 진드기에게 물린 이후의 경과시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라임병 병원균을 옮기는 진드기는 박테리아에 전염되기 전 최소 36~48시간동안 숙주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진드기에 물린 후에 즉시 제거하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라임병 감염이 대부분 특정 지역이라고 보고하였는데, 2013년 미국에서 확인된 라임병의 95%는 단지 14개의 주에서만 보고되었다<sup>1)</sup>. 영국에서도 라임병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Telegraph에 따르면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보고서에서 지난 12년 동안 질병의 발생이 네 배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지난 달에는 London School의 연구진이 런던의 리치몬드와 부시공원 두 곳에서 진드기를 옮기는 라임병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이 공원에서 라임병의 감염 위험은 낮지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라임병은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에 의한 질병이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북동부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도했다.

## 진드기에 물리는 것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진드기가 달라붙고, 흡혈당하며, 잠재적으로 감염을 전파할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예방조치들이 있다. 대부분 진드기는 풀숲이나 낙엽더미가 있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발견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환경을 피하거나 주의해야 한다.

옷은 진드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데, 팔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팔상의를 입고, 바지 끝을 양말과 부츠 속으로 넣어 다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방충제도 활용할 수 있다. 방충제는 20~30%의 DEET(N, N-diethyl-m-toluamide)를 함유하고 있어 진드기로부터 수시간 동안 보호한다.

진드기가 있는 환경에 노출된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진드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진드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신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진드기의 즉각적인 제거는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데, 전문적인 진드기 제거장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뾰족한 한 쌍의 핀셋이 더 적절하다.

핀셋을 사용하여 가능한 피부 표면에 가깝게 하여 진드기를 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의 압력으로 위로 잡아당긴다. 진드기를 비틀고 갑자기 잡아당기는 것은 진드기의 입 부분이 피부에 남아있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가 발생된다면,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한다. 일단 진드기가 제거되면 해당 부위와 손을 씻고 진드기를 알코올에 담그거나, 밀봉된 용기에 담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림으로써 진드기를 없앤다. 손가락으로 진드기를 으스러뜨리면 안 된다.

진드기는 4월에서 9월 사이 따뜻한 계절에 가장 활동적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도 진드기는 유해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작은 곤충들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2450.php>

1)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라임병은 1975년 코네티컷의 라임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었고, 이 지역의 이름으로부터 질병의 이름이 유래)